

질문거리

- 창세기와 관련한 (개신교인들의) 초미의 관심사=> 창조 의미는? 원죄/타락 교리
- 교회사적 의미 (근본주의 탄생, 사영리 도입)
 - ⇒ 근본주의 5 개 신조. 왜, 언제 생겨났나? 20 세기 초, 역사비평에 대한 반작용으로
 - ⇒ 진화론 창조론 법정 투쟁=> 원숭이 재판(1925)
 - ⇒ 한국기독교와의 관계 (http://ko.wikipedia.org/wiki/%EA%B8%B0%EB%8F%85%EA%B5%90_%EA%B7%BC%EB%B3%B8%EC%A3%BC%EC%9D%98)

I. 두 개의 창조 이야기, 어떻게 다른가?

A. J (창세기 2-3 장)

1. 원죄/타락에 관한 이야기가 아님

- 순서. P 문서에서는 사람이 마지막에 창조되지만, J 문서에서는 다른 생명체보다 먼저 창조됨.
 - ⇒ 창 2:5 "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." 아담(lit, "사람")과 동물, 그리고 하와를 순서대로 창조 (창 2:18-25).
 - ⇒ 창세기 1 장에서 창조 순서

Day	재료, 자원(materials/framework)	Day	산물(products)
1	빛 (1-5)	4	광명 (luminaries) (14-19)
2	궁창 (6-8)	5	물고기, 새 (20-23)
3	땅과 바다 (9-13)	6	생물—육축과 짐승 (land creatures)
	채소, 열매 나무 등 (vegetation)		사람(남자와 여자)

- "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"와 죽음, 그 상징성은? (=> 바벨론 신화, 길가메쉬에서 엔키두와 여인); "죄"라는 단어는 창 4:7 에 처음 등장.
- 뱀의 등장=> 지혜의 상징, "간교"(?). 히브리어 아룸(ערום)은 ①wise, ②naked 이라는 의미.
 - ⇒ 어떤 의미로든, 창조의 능력. (P 에서처럼 "생육하고 번성하라"는 말이 없다.)
 - ⇒ 뱀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, 진실을 말한 것, 곧 하느님처럼 선악을 알게됨(3:22). Cf. "네가 먹는 그 날에 정녕 죽으리라"(창 2:17; 3:3); "결코 죽지 아니 하리라"(창 3:4=> 5:5). 영적 죽음을 말하는 구절은 어디에도 없다. 물론 악마(Devil)나 사탄(Satan) 이미지도 아니다.
- 남존여비 사상. 이것은 성서적 표현에 의하면 하느님이 인간에게 내린 벌. 곧, 본래 하느님의 창조의 질서는 아니라는 말. (다시 읽기. 잘못된 세상)=> 그런데, 이것이 하느님의 뜻인양 가르치면 안되지요?
- 바벨론 신화와 마찬가지로, 결론은 영생나무를 인간의 손에서 멀어지게 함. (cf. "etiology")

2. 홍수와의 관계 => 달라진 것은

- 홍수의 시작. 인간을 멸하려, 왜?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인간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(창 6:5-8)
- 홍수 후 달라진 것은? 인간은 여전히 악하다. 하느님이 회심/생각을 바꿈 (8:21)
- 그렇다면, 죄에 대한 심판이라기 보다, 재창조 과정.

B. P (창 1 장)

1. 바벨론 포로기. 창조설화 다시 이해하기

2. 우주관과 정체성.

- 인간세상은 신들의 뜻을 반영
 - 지배체제 (신 32:8-9)=> 왕은 신들의 대리통치자(co-regent)
 - 민족간의 분쟁은 신들의 전쟁. 예) 사무엘상 5 장. (블레셋 사람/다곤 vs. 이스라엘/야훼)
- 야훼가 마르독에게 진 것이 아닌, 이스라엘의 잘못. 스스로의 행실이 오늘을 가져왔다.
 - 당시 천체의 행성은 모두 신으로 숭배. 이 중 해(Babylonian god, Marduk)와 달(Babylonian god, Sin)이 대표적인 예.
 - 전쟁에 패한 민족은 그 민족의 신상과 함께 포로로 잡혀감=> 민족의 정체성 말살 의도.
 - 유대민족은 6 세기 초 바벨론에 의해 멸망, 포로로 잡혀감. Q: 종교(정체성)을 바꾸나?

II. 신학 다시하기: 창조에는 초대

- 인간의 신분 상승. 인간은 신들의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한 소모품이 아니라, 신의 형상을 따른 Co-creator
- 창조-재창조 도식=> 인간은 이 세상을 관리하도록 부름받음(召命)
- 불순종의 의미
 - ⇒ 하느님처럼 되려는 것을 경계한다면?
 - 1) 궁중신학적 이해=> 말 잘듣고, 까불지마 (내가 하느님을 대신하니까)
 - 2) 민중신학적 입장=> 함부로 하지마 (너는 하느님이 아니니까)
 - ⇒ 죽음에 대하여 => 선한 사람, 악한 사람 모두 시울(Sheol, Gr. Hades)로 감. 땅에 묻힘 (창 2:7; 3:19); 아담(אָדָם, 사람), 아다마(אֲדָמָה, 땅/흙)
 - ⇒ 소명을 재확인. (소명을 잊은/잃은 것이 “타락”/“죄”라면, 이를 회복하는 것이 “구원”/재창조에 해당한다.)
 - ⇒ 누구의 죄? 책임이 내게/우리에게 있다. 자신의 소명을 찾을 때, 역사는 새롭게 변화한다.

생각해 보기

근본주의 5 개 신조

1. 축자영감설에 기초한 성서무오설. The [inspiration](#) of the Bible and the [inerrancy](#) of Scripture as a result of this.
2.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. The [virgin birth](#) of Christ.
3. 그리스도의 대속설. The belief that Christ's death was the [atonement](#) for sin
4. 육체적 부활. The bodily [resurrection of Christ](#).
5. 그리스도의 기적의 역사성. The historical reality of [Christ's miracles](#).

사영리(四靈理) –c.c.c. (Campus Crusade for Christ)—Bill Bright

1. 하나님은 **당신**을 사랑하시며(John 3:16), 당신을 위한 놀라운 **계획**을 가지고 계십니다(John 10:10).
2. 사람은 **죄**에 빠져(Romans 3:23) 하나님으로부터 **떠나** 있습니다(Romans 6:23).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,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.
3.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**유일한** 길입니다.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,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. (Rom 5:8; 1 Cor 15:3-6; John 14:6)
4.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'나의 구주, 나의 하나님'으로 **영접**해야 합니다.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,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. (John 1:12; Eph 2:8-9; John 3:1-3; Rev 3:20).
 - 예수의 삶을 다루는 공간복음의 이야기는 전무하다.
 - 제국주의적 발상. 나는 알고, 너는 모른다. 고로 내 말을 들으라.
 - 나름대로 자신의 신학을 정립하고 있다. 또한 이를 바탕으로 성서를 일관성 있게 이해. 그런데 이를 내 말로 옮길 수 있어야.